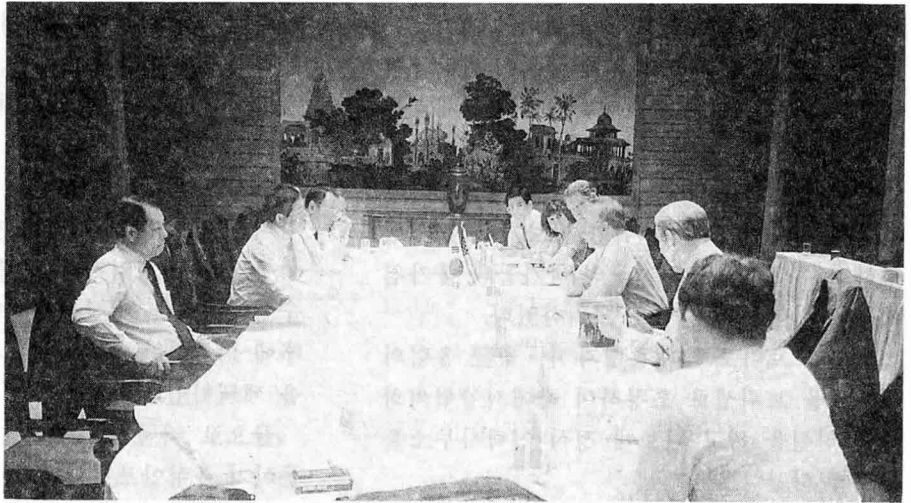


제7차 韓·美 防産공동운영위원회의 개최

韓·美 방산공동운영위원회 제7차 회의가 9월 28일 제주도 서귀포시 제주신라호텔에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柳續佑 회장과 미국방위준비협회 Lawrence F. Skibbie 회장등 내빈과 양측 운영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韓·美 방산공동운영위원회 제7차 회의가 9월 28일 제주도 서귀포시 제주신라호텔에서 한국방위산업진흥회(KDIA) 柳續佑 회장과 미국방위준비협회(ADPA) Lawrence F. Skibbie 회장등 내빈과 양측 운영위원 및 관련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柳俊龔 한국측 공동의장은 양측 위원들에 대한 환영인사와 함께 개회사를 통해 한·미 방산공동운영위원회의 활동과 한·미 방산회의에 대한 경과를 간략히 언급하면서, 기술이전과 오프셋(off-set), 공동 연구개발과 지적소유권 보호 및 상호구매등 한·미 방산협력 증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과거부터 중점적으로 토의되어온 5개 분야에 대해 披瀝하였다.

柳俊龔 공동의장은 『대부분의 이슈(issue)가 양국 정부에 의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기술이전과 상호구매 확대의 2개 분야는 다른 분야와는 달리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고 지적하면서, 한반도의 안보정세는 기본적으로 변한 것이 없으며, 현재 핵무장까지 갖춘 북한의 위협이 사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는 시점이므로, 한·미간의 장기간에 걸친 결속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참조: p.p 4~7, 「전환기의 한·미 방산협력」)

이에 대해 제인 핑클스타인 미측 공동의장은 기술이전문제에 주목하면서 현 사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도를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한·미 관계는 공동목표와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기에 더욱 중요한 것이며, 미측으로서는 이러한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히면서, 현재의 한·미 관계는 상호의존적 관계이며, 장차에도 이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미 방산공동운영위원회는 한·미 방산회의 개최 및 양국 방산협력의 중대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 추진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양국 방산업계를 대표하는 주요인사들로 운영위원이 선정되어 있다.

운영위원은 양측이 각 10명정도이며, '87년부터 현재까지 6차에 걸쳐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각종 방산관련자료 교환과 함께 양국 방산협력의 현안사항이 심도있게 협의되어 왔다.

이번 회의의 주요 토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90년도 KDIA/ADPA 주요 활동 보고

- 故 Ulrich 대령(예) 서훈 수여
- 美 防産人士 국군의 날 행사 초청
- 韓·오레곤 회의 결과
- '90년도 防振會의 美 방산업체 및 기관 지원실적

- * 한·미 방산 공동관심사항
 - 조달시장 상호 참여
 - 양국 정부 DTIC회의에 업체 대표 참가
 - 오프셋(off-set)
 - 업체대표 중심으로 공동연구개발위원회 구성

- * 차기 한·미 방산회의 개최시기 및 장소
 - '91년 11월 「서울 국제 방산전시회(Defence Seoul '91)」 연계 개최에 잠정 합의
- * 차기(제8차) 회의 개최시기 및 장소
 - '91년 3~4월경 美 콜로라도 스프링스로 잠정 합의

제1회 전투차량 개발기술 학술대회 성황리에 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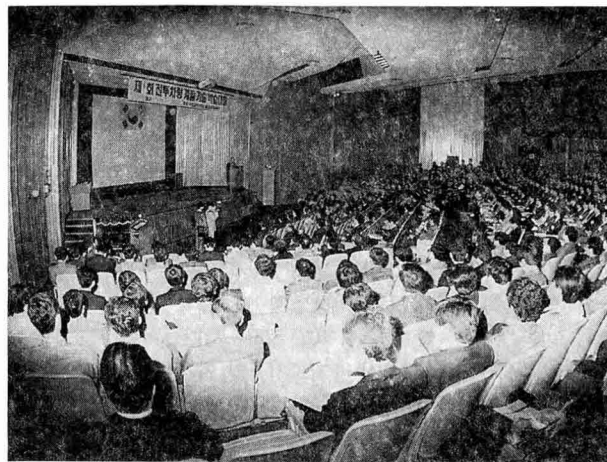
전투차량 개발기술에 대한 현황분석 및 연구활성화를 위한 「제1회 전투차량 개발기술 학술대회」가 10월 18일부터 2일간에 걸쳐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학술대회는 군 및 산·학·연의 관련인사 6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특별강연 2편을 비롯하여 국방과학연구소 장기 기초연구사업 안내와 함께, 군 및 산·학·연이 수행중인 전투차량 연구개발과 관련된 109편의 연구논문이 발표되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安喆浩 소장은 축사에서, 『연구개발의 자립화가 없이는 실질적인 자주국방을 이룩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투차량에 소요되는 각종 기술—즉, 화력, 기동력 및 방호력에 관한 기술을 우리 힘만으로 완성할수 있다는 것은 지상적인 자주국방 능력을 완성시키는 의미에서 시기 적절한 행사이며, 기술자립의 전환점을 이룩하는 계기가 될것』이라고 피력하였다.

「전투차량의 연구개발 방향」이라는 주제로 첫 특별강연에 나선 신영철 박사(국방과학연구소)는 군 및 산·학·연의 협력체제와 관련하여 학계 및 정부출연 연구소는 기초과학과 응용기술의 확보에 노력하고, 군 및 국방과학연구소는 개발기술의 무기체계로의 접목을 수행하며, 방위산업체는 양산시 완벽한 생산기술을 확보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연구논문의 발표는 정책/전술, 군수지원, 시험평가 및 품질보증의 공통분야, 체계개발 및



발전추세/방향, 인간공학, 화생방의 시스템 설계분야, 무장, 탄두/탄약, 사격통제 및 Power Drive의 화력분야, 동력발생/전달, 동력학/현수장치 및 Wheel/Track/Terrain의 기동분야, 구조설계, 재료 및 방호력의 구조분야등 총 5개분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열띤 토론을 통해 전투차량 기술개발의 방향정립과 기술심화에 一助를 한 것으로 보인다.

사무실 이전

오리엔탈공업(주)의 사무실이 다음과 같이 이전되었습니다

이전일자	1990. 10. 6.
이전장소	서울 종로구 연건동 128번지 (한국해외개발공사 제1별관 3층)
대표전화	(02) 741-1460
F A X	(02) 741-1468